

귀계선생 침사적  
龜溪先生沉事蹟

유사  
遺事

부군 휘 침 자 성 묵 자 호 귀계사 종 포 은 정선생 유 득 문 성 리 지 학 기 출 이 사 야 역 관 조 봉 대  
 府君諱沉字聖默自號龜溪沙從圃隱鄭先生遊得聞性理之學其出而仕也歷官朝奉大  
 부 전 의 소 감 제 처 사 이 세 종 조 이 부 군 소 거 달 성 지 형 주 조 가 설 성 보 명 사 남 산 고 역 기 금  
 夫典醫少監制處使我世宗朝以府君所居達城地形周遭可設城堡命賜南山故驛基及  
 연 신 신 지 소 관 토 전 차 의 작 상 부 군 사 지 불 획 내 왈 무 이 즉 원 여 일 읍 지 민 공 수 사 청 감 본  
 蓮信新池所灌土田且議爵賞府君辭之不獲乃曰無已則願與一邑之民共受賜請減本  
 읍 관 직 지 모 일 위 백 대 박 시 지 성 전 상 의 이 허 지 사 재 읍 지 읍 인 승 지 지 금 현 묘 을 사 건 사  
 邑官耀之耗剩爲百代博施之聖典上義而許之事載邑誌邑人頌之至今顯廟乙巳建祠  
 우 달 성 지 남 방 왈 구 암 서 원 백 세 공 승 지 재 인 심 개 무 궁 언 부 군 득 지 호 고 비 심 병 즉 신 기  
 于達城之南榜曰龜巖書院百世公誦之在人心蓋無窮焉府君篤志好古非甚病則晨起  
 분 향 독 서 미 샅 거 수 지 기 사 이 행 기 즉 유 급 급 여 택 민 애 물 작 모 형 감 차 기 일 사 이 내 금 세  
 焚香讀書未嘗去手至其仕而行其則惟汲汲於澤民愛物耀耗請減此其一事而乃今世  
 대 추 천 문 헌 막 징 미 행 의 적 승 무 이 소 향 기 만 일 즉 차 기 비 자 손 금 불 세 지 한 아 여  
 代推遷文獻莫徵美行懿蹟率無以邇嚮其萬一則此豈非子孫汲(沒)世之恨也歟

후손 한준근기  
後孫 漢儁 謹記

귀계선생 침사적 유사(遺事)

부군(府君)의 휘는 침이요, 자(字)는 성묵(聖默)이며 자호(自號)를 귀계(龜溪)라 하고, 포은(圃隱) 정선생(鄭先生)을 좇아 성리학(性理學)을 배웠었다. 나가서 벼슬하였으니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少監)에 제처사(制處使)였으며 세종조(世宗朝)에 부군(府君)께서 살고 있는 달성지형(達城地形)이 언덕에 둘러 쌓이여 성보(城堡)를 설치(設置)할 수 있으므로 명하여 남산의 옛 역(驛)터와 연신(蓮信), 신지(新池) 두 못으로 물댈 토지(土地)를 하사(下賜)하고 또 벼슬과 상을 주기로 의결(議決)하니 부군(府君)이 이것을 사퇴하려고 되지 않아 이에 말하기를 부득이 하다면 원하옵건데 일읍(一邑)의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은덕(恩德)으 받도록 본읍(本邑)에 상환곡(償還穀)의 이식(利息)을 감하여 백대(百代)에 박시(博施)의 성전(聖典)이 되옵기를 간청하나이다. 하니 상(上)이 의인(義人)이라 하고 허락하시었다. 사실이 읍지(邑誌)에 실려있고, 읍인(邑人)이 이것을 칭송하기를 이제까지 이르렀으며 현종(顯宗)을사년(乙巳年)(一六六五)에 달성남(達城南)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판(板)에 이르되 귀암서원(龜巖書院)이라 하였으니 백세가 되도록 공의 칭송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무쳐 가히 무궁하리라. 부군(府君)이 뜻을 도타이하고 옛을 좋아하며 심한 병(病)이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 향(香)을 태우고 글을 읽기를 언제나 손에 놓지 않았다. 벼슬에 있어서는 그 덕인 즉 오직 백성에 혜택(惠澤)과 물건(物件)을 사랑하기를 급급하였으며 상환곡(償還穀)의 이식(利息)을

감(減)하기를 간청한 이 한가지 일로서 지금 세대에 추천(推遷)되었으나 문헌(文獻)이 부족하므로 고징(考徵)할 수 없고 아름다운 행적(行蹟)을 거의 그 만(萬)에 일(一)도 소급(溯及)할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자손의 급세(汲世)토록 한이 아니냐. 후손 한준은 삼가 기록하노라

행장  
行狀

先生諱沉字聖默號龜溪吾徐之貫達城始自麗朝版圖判書諱晉於先生高祖曾祖諱奇  
 俊都官佐郎追封達川君祖諱穎門下侍中封達城君考諱鈞衡號鶴巖恭愍王庚子登第  
 以忠直清白顯官至政堂文學諡貞平妣光山郡夫人金氏典議副令英利之女先生生而  
 岐嶷性又又仁厚旣長遊圃隱先生之門得聞君子爲學之方當 世宗朝南邊三浦歲有  
 外警列邑之城堡方嚴而先生所居之達城卽嶺以南一都會之地地形周遭可以爲城守  
 輸入國家以禦外侮 上命賜府南五里許南山故驛基及蓮信新池兩池所灌土地所播  
 雜物以換其地且論其賞將加世祿先生固辭不受乃曰莫非王土何以賞爲無已則與其  
 爲一家之私恩曷若爲萬民之均惠請減本府糴耗逐石五升以爲 朝家千百世博施之  
 殊典 上義而許之遂成一邑常制民到今受賜筮仕爲朝奉大夫典醫少監又以才望  
 擢授三南均田制處使正統二年丁巳陞通政二月除寧海府使兼勸農使辭不赴先生雖  
 未得大展布而隱居力學篤志好古生徒之負笈請業者隨才施教多有成就焉墓在大丘  
 八公山中心洞向良之原與夫人李氏爲上下墳李氏籍固城景安公國軒之后曾祖判中  
 軍都摠制諱允柱祖判右軍都摠制備巡衛諱伯考東宮詹事諱乙芳有三男一女男長文  
 翰文科副丞次文幹文科縣監次文德文科郡守出后於先生之弟府使公諱濶 女適權自  
 和縣監副丞生三男一女濟縣監渡文學諭涉吏曹判書女適沈膺豐山君 贈領議政  
 縣監生一男近中監察郡守生三男錫蓮進士錫莢生員錫荅進士以下不盡錄其有科宦  
 者曾孫智元進士仁元文科牧使勇元生員叔元進士震元進士坎元生員震孫直長乾孫  
 主簿義孫縣監玄孫弼察訪尹參奉 迺訓導遜副尉渾習讀佑贈參議倣訓導眉壽生員期

수 참봉 규정랑 구관관학문 주부 오세손 기종기문 구 참봉 두남교수 덕윤좌랑 덕선 참봉  
 壽參奉規正郎矩判官鶴文主簿五世孫起宗起門俱參奉斗南教授德潤佐郎德宣參奉  
 덕공 증 참관 덕양 직장희 부시언개 참봉시 중현감시웅진사우교관진 습득희 증 참의 육  
 德恭贈參判德讓直長希福時彥皆參奉時重縣監時雄進士遇教官津習讀熙贈參議六  
 세손형진사홍교관식생원진사 함첨추현 참봉 창첨추춘양부정벽첨추기 증 판결사 일  
 世孫河進士洽教官湜生員進士涵僉樞顯參奉昌僉樞春陽副正璧僉樞琦贈判決事逸  
 주부 증 참관 한감찰언겸주부인 증 첨사 향다산사 칠세손 사원정랑 세칭낙재 선생 향이  
 主簿贈參判澣監察彥謙主簿仁忠僉使享茶山祠七世孫思遠正郎世稱樂齋先生享伊  
 강원사막훈도사 선 참봉 호동고향옥천원사 건 증 장악정극성 증 우윤극경주부극명선  
 江院思邈訓導思選參奉號東皐享玉川院思建贈掌樂正克誠贈右尹克敬主簿克明宣  
 무랑우직봉사호명찰방우인봉사득린 참봉 기운주부극계첨추광음교수경한호군승  
 務郎禹績奉事昊命察訪禹仁奉事得麟參奉起雲主簿克悌僉樞光胤教授景涵護軍承  
 후 참봉 이원찰방관동추정판결사 팔세손 함현감각주부용동추혜첨추변문과군수 증  
 後參奉以遠察訪寬同樞正判決事八世孫恒縣監恪主簿慄同樞愨僉樞忤文科郡守贈  
 참의 향옥계원로부정봉 참봉 옥봉사근 참봉 위첨추영길역첨추시립 참봉 증 좌랑 호전  
 參議享玉溪院璐副正瑋參奉項奉事瑾參奉瑋僉樞永吉亦僉樞時立參奉贈佐郎號全  
 귀당향백원원지세번창이누천수세위선생적덕지보운어호선생심리지학충효지행  
 歸堂享百源院支裔蕃昌以屢千數世謂先生積德之報云於乎先生性理之學忠孝之行  
 위세소추이세대멸막누경병선생졸년월유불능고죽거가사행입조모유하유이십추  
 爲世所推而世代綿邈屢經兵燹生卒年月猶不能考則居家事行立朝謨猷何由而尋逐  
 만일 호상관제가명현록혹운칠감혹운 증추원사이개부재어가전고불감서유시감모  
 萬一乎當觀諸家名賢錄或云七監或云中樞院事而皆不載於家傳故不敢書惟是減耗  
 일사영위구민지구비지유가호시축지원 현묘을사원근장보제심찰의찰승현사우  
 一事永爲邱民之口碑至有家戶尸祝之願 顯廟乙巳遠近章甫齊聲倡議勅崇賢祠于  
 부지남이조두지후수 년이건우달성지남구암지하인기구제이승식지우이선생지  
 府之南而俎豆之後數 年移建于達城之南龜巖之下因其舊制而崇飾之又以先生之  
 방손사가휘거정함재휘배약봉휘성차재추향자감취취가전지 지참이갈문전배수록  
 傍孫四佳諱居正涵齋諱嶺藥峰諱消次第追享茲敢撫取家傳地誌參以碣文前輩手錄  
 유족상증지임서기세계지손록약가은팔여우이준병필군자자지고신재행언  
 有足相證者仍叙其世系子孫錄略加槩括如右以竣秉筆君子者之考信哉幸焉

후손 활 근찬  
後孫 活 謹撰

### 행장

선생(先生)의 휘(諱)는 침(沉)이요, 자(字)는 성묵(聖默)이며 호(號)는 귀계(龜溪)이다. 우리 서씨(徐氏)의 본관은 달성(達城)이니 여조(麗朝) 판도판서(版圖判書)인 휘진(晉)으로부터 비롯하였으며 선생에게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기준(奇俊)이니 도관좌랑(都官佐郎)에 달천군(達川君)을 추봉(追封)하였고, 조(祖)의 휘는 영(穎)이니 문하시중(門下侍中)에 달성군(達城君)을 봉하였고, 고의 휘는 균형(鈞衡)이니 호가 학암(鶴巖)이시고 공민왕 경자(庚子)에 등제(登第)하여 충직(忠直)과 청백(清白)으로 드날렸다. 벼슬은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으며 시(諡)는 정평(貞平)이다. 비(妣)는

광산군부인(光山郡夫人) 김씨(金氏)요 전의부령(典儀副令)인 영리(英利)의 따  
 님이라. 선생이 나서 억실하게 지각이 있었고 성품(性品) 또 인후(仁厚)하였  
 다. 이미 자라서 포은선생(圃隱先生)의 문에서 군자의 배우는 방향을 얻어  
 들었고, 세종조(世宗朝)에 당하여 남변(南邊) 삼포(三浦)에 해마다 외적(外  
 賊)이 있어 열읍(列邑)의 성보(城堡)가 바야흐로 엄속하여야 되므로 선생의  
 살고 있던 달성은 곧 영남(嶺南)의 한 도회(都會)의 땅으로 지형(地形)이 두  
 루 막히여 성(城)으로서 지킬만 하므로 국가가 환수하여 외모(外侮)를 방어  
 (防禦)하기로 하고 상(上)이 명(命)하여 부남(府南) 오리허(五里許)에 남산  
 (南山) 옛 역(驛)터 및 연신(蓮信) 신지(新池) 양지(兩池)의 물 댈바 토지에  
 서 바치는 바 잡물로써 그 땅을 바꾸기로 하고 또 그 상(賞)을 논하여 장차  
 세록(世祿)을 더하려 하니 선생이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고 곧 말하기를 임  
 금의 땅이 아님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상을 받겠습니까. 할 수 없다면 이 한  
 집에 사은(私恩)을 주시기 보담 만민(萬民)이 골고루 혜택(惠澤)을 입기만  
 같지 못하오니 청(請)하옵건데 본부(本府)에 상환곡(償還穀)의 이식(利息)에  
 한 섬머리 닷되씩을 감하게 해서 조가(朝家)가 천백세로 넓게 베풀었다는 특  
 전(特典)이 되게 하소서. 상(上)이 의리(義理)가 있다하며 허락하시니 드디어  
 일읍(一邑)의 상례(常例)가 되어 백성이 지금까지 혜택(惠澤)을 입고 있다.  
 처음 벼슬하여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少監)이 되었고, 또 재망(才  
 望)으로 뽑히여 삼남(三南) 균전(均田) 제처사(制處使)를 배수하였고, 세종  
 (世宗) 十九년(일사삼철) 정사(丁巳)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二月  
 에 영해부사(寧海府使)를 제수하고 권농사(勸農使)를 겸하니 사양하고 부임  
 (赴任)하지 않았다. 선생이 비록 크게 영승(榮陞)치 않았으나 숨어 살며 힘  
 써 배우고 뜻을 도탑게 하여 옛을 좋아하였으며 생도(生徒)들이 책꼬리를 지  
 고 학업을 청하는 자는 재능(才能)에 따라서 교육(教育)을 베풀어 많이 성취  
 함이 있었다. 묘는 대구 팔공산 증심동 간방(良方)을 향한 두던에 있으니 부  
 인(夫人) 이씨(李氏)와 함께 상하분(上下墳)이 된다. 부인(夫人)은 고성이씨  
 (固城李氏)에 경안공(景安公) 국헌(國軒)의 뒤요, 증조(曾祖)는 판중군(判中  
 軍) 도총제(都摠制) 휘는 윤주(允柱)요, 조(祖)에 판우군(判右軍) 도총제(都  
 摠制) 비순위(備巡衛) 휘는 백(伯)이며, 고(考)에 동궁(東宮) 첨사(詹事) 휘는  
 을방(乙芳)이라. 삼남일녀(三男一女)를 두었으니 맏아들 문한(文翰)은 문과  
 (文科)에 부승(副丞)이요, 다음 문간(文幹)은 문과(文科)에 현감(縣監)이요,  
 셋째 문덕(文德)은 문과(文科)에 군수(郡守)로서 선생의 아우인 부사공(府使  
 公) 휘 습(習)의 뒤로 출계(出系)하였고, 따님에 현감(縣監) 권자화(權自和)  
 라. 부승(副丞)이 삼남일녀(三男一女)를 두었으니 제(濟)는 현감(縣監)이요,

도(渡)는 문과(文科) 학유(學諭)요, 섭(涉)은 이조판서(吏曹判書)요, 따님은  
 심응(沈膺)이니 풍산군(豐山君)에 영의정(領議政)을 증직(贈職)하였다. 현감  
 (縣監)이 일남(一男)을 두었으니 근중(近中)이며 감찰(監察)이요, 군수(郡守)  
 가 삼남(三男)을 두었으니 석련(錫蓮)은 진사(進士)요, 석명(錫蒙)은 생원(生  
 員)이요, 석령(錫苓)은 진사(進士)이니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노라. 그 후손  
 으로 환로(宦路)에 있었던이는 증손(曾孫) 지원(智元)은 진사(進士), 인원(仁  
 元)은 목사(牧使), 용원(勇元)은 생원(生員), 숙원(叔元)은 진사(進士), 진원  
 (震元)은 진사(進士), 감원(坎元)은 생원(生員), 진손(震孫)은 직장(直長), 건  
 손(乾孫)은 주부(主簿), 의손(義孫)은 현감(縣監)이요, 현손(玄孫)에 필(弼)은  
 찰방(察訪), 윤(尹)은 참봉(參奉), **괄(适)**은 훈도(訓導), 손(遜)은 부위(副尉),  
 혼(渾)은 습독(習讀), 우(佑)는 참의(參議)를 증직하였으며, 숙(倣)은 훈도(訓  
 導), 미수(眉壽)는 생원(生員), 기수(期壽)는 참봉(參奉), 규(規)는 정랑(正  
 郎), 구(矩)는 판관(判官), 학문(鶴文)은 주부(主簿)요, 오세손(五世孫)에 기  
 종(起宗), 기문(起門)은 함께 참봉(參奉)이요, 두남(斗南)은 교수(教授), 덕윤  
 (德潤)은 좌랑(佐郎), 덕선(德宣)은 참봉(參奉), 덕공(德恭)은 참판(參判)을  
 증직(贈職)하였고, 덕양(德讓)은 직장(直長), 희복(希福)과 시언(時彦)은 다  
 참봉(參奉)이며, 시중(時重)은 현감(縣監), 시웅(時雄)은 진사(進士), 우(遇)  
 는 교관(教官), 진(津)은 습독(習讀), 희(熙)는 참의(參議)를 증직(贈職)하였  
 고, 육세손(六世孫) 형(洞)은 진사(進士), 흠(洽)은 교관(教官), 식(湜)은 생  
 원(生員) 진사(進士), 함(涵)은 첨추(僉樞), 현(顯)은 참봉(參奉), 창(昌)은 첨  
 추(僉樞), 춘양(春陽)은 부정(副正), 벽(璧)은 첨추(僉樞), 기(琦)는 판결사(判  
 決事)를 증직(贈職)하였으며 일(逸)은 주부(主簿)에 참판(參判)을 증직하였  
 고, 한(澣)은 감찰(監察), 언겸(彦謙)은 주부(主簿), 인충(仁忠)은 첨사(僉事)  
 로 다산사(茶山祠)에 배향(配享)하였으며, 칠세손(七世孫)에 사원(思遠)은 정  
 랑(正郎)에 세상에서 낙재선생(樂齋先生)이라 일컬으며 이강서원(伊江書院)  
 에 배향(配享)하였고, 사막(思邈)은 훈도(訓導)요, 사선(思選)은 참봉(參奉)이니 호  
 를 동고(東皐)라 하며 옥천서원(玉川書院)에 배향(配享)하였고, 사건(思建)은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증직(贈職)하였다. 극성(克誠)은 우윤(右尹)을 증직하  
 였으며, 극경(克敬)은 주부(主簿), 극명(克明)은 선무랑(宣務郎), 우적(禹績)  
 은 봉사(奉事), 호명(昊命)은 찰방(察訪), 우인(禹仁)은 봉사(奉事), 득린(得  
 麟)은 참봉(參奉), 기운(起雲)은 주부(主簿), 극계(克悌)는 첨추(僉樞), 광운  
 (光胤)은 교수(教授), 경함(景涵)은 호군(護軍), 승후(承後)는 참봉(參奉), 이  
 원(以遠)은 찰방(察訪), 관(寬)은 동추정(同樞正) 판결사(判決事)요, 팔세손  
 (八世孫)에 항(恒)은 현감(縣監), 각(恪)은 주부(主簿), 울(慄)은 동추(同樞),

혜(攄)는 첨추(僉樞), 변(忭)은 군수(郡守)에 참의(叅議)를 증직(贈職)하였고, 옥계서원(玉溪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 로(璐)는 부정(副正), 봉(逢)은 참봉(叅奉), 옥(頊)은 봉사(奉事), 근(瑾)은 참봉(叅奉), 위(瑋)는 첨추(僉樞), 영길(永吉)도 첨추(僉樞), 시립(時立)은 참봉(叅奉)에 좌랑(佐郎)을 증직(贈職)하였으며, 호를 전귀당(全歸堂)이라 하니 백원서원(百源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 후손이 번성하여 여러 천으로 헤아릴 것이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선생의 덕을 쌓은 값음이라 한다. 아! 선생은 성리(性理)의 학(學)과 충효(忠孝)의 행(行)으로 세상에 추존(推尊)된 바이라. 세대가 멀고 멀어서 여러번 병화를 거쳐서 나고 죽은 나날은 오히려 고증할 수 없으니 집에 거(居)하여 사업(事業)과 행실(行實)이며 조정(朝廷)에 있어 정사(政事)한 바를 무엇을 말미암아 만에 하나인들 찾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번 명현록(名賢錄)을 살펴보면 혹은 칠감(七監)이라 하고 혹은 중추원사(中樞院事)라고 이르나 모두 가전(家傳)에 실리지 않은 까닭에 감히 쓰지 못하고 오직 이 상환곡(償還穀)의 이자를 감하였다는 일만은 **길**이 대구 백성들의 구비(口碑)가 되어 집집마다 제향하겠다는 소원(所願)이 있는 까닭에 현종(顯宗) 六年(一六六五) 을사(乙巳)에 멀고 가까운 선비들이 소리를 가즈런이 의논(議論)을 일으켜 승현사(崇賢祠)를 부남(府南)에 창건(創建)하여 제향(祭享)을 받들게 되었고 수년 뒤에 달성남(達城南) 귀암(龜巖) 아래에 이건(移建)하여 그 구제도(舊制度)에 따라서 정성껏 꾸리고 또 선생의 방손(傍孫)인 사가(四佳)의 휘거정(居正)과 함재(涵齋)의 휘해(嶰)와 약봉(藥峯)의 휘성(渚)을 차례(次第)로 추향(追享)하였다. 여기 감히 가전(家傳)과 지지(地誌)에 의거(依據)하고 갈문(碣文)과 선배(先輩)의 수록(手錄)를 참고하여 즉히 서로 증빙(證憑)할 만한 것에 의준하여 그 세계(世系)와 자손록(子孫錄)을 차례로 적어서 대량 교정(較正)을 더한 것이 우와 같으니 후세에 좋은 말을 쓸만한 군자를 기다려서 참고로 믿고 헤아려 준다면 다행하게 여기노라. 후손 활 삼가 지음.